투자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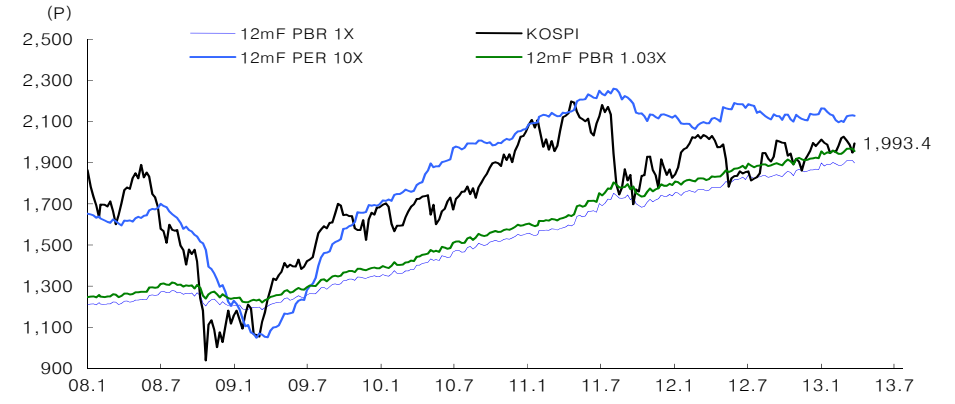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에 집중(IT, 내수 소비재)

Quant. Analyst 이대상 (769-3545) daesanglee@daishin.com

* 변동성이 큰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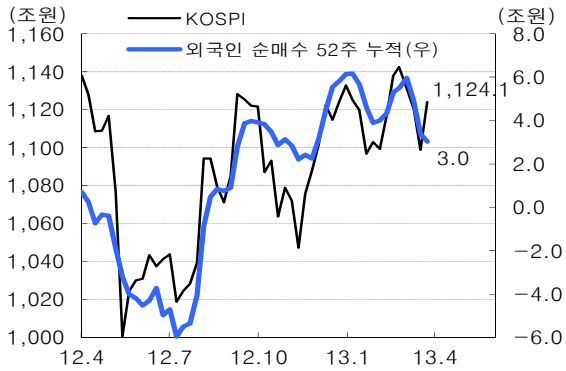
3월 KOSPI는 -1.63%의 수익률을 보이며 2월의 3.29% 상승의 절반을 내줬다. 키프로스 사태와 북한 관련 이슈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그 영향으로 외국인은 KOSPI를 2조 4,501억원 순매도하며 시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기관과 특히 연기금과 국가,지자체가 강하게 순매수하며 (각각 KOSPI 7,182억원, 6,661억원 순매수) 시장을 방어했다. 시장이 하락했지만 12mF PBR 1.02배까지만 하락하며 하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4월은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지만 12mF PBR 1배를 하향 이탈하는 급락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업종 전략으로는 4월 어닝 시즌을 맞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며, 그 결과 IT섹터의 업종과 내수 소비재 업종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한다.

그림 1. KOSPI는 상단 12mF PER 10배, 하단 12mF PBR 1배(최근에는 1.03배)의 박스권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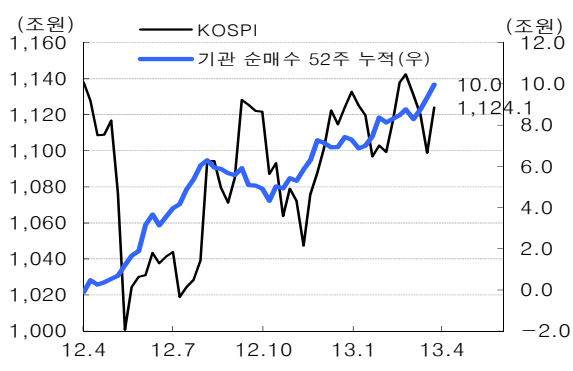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외국인의 52주 누적 순매수 흐름



참고: 검은선은 KOPSI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기관의 52주 누적 순매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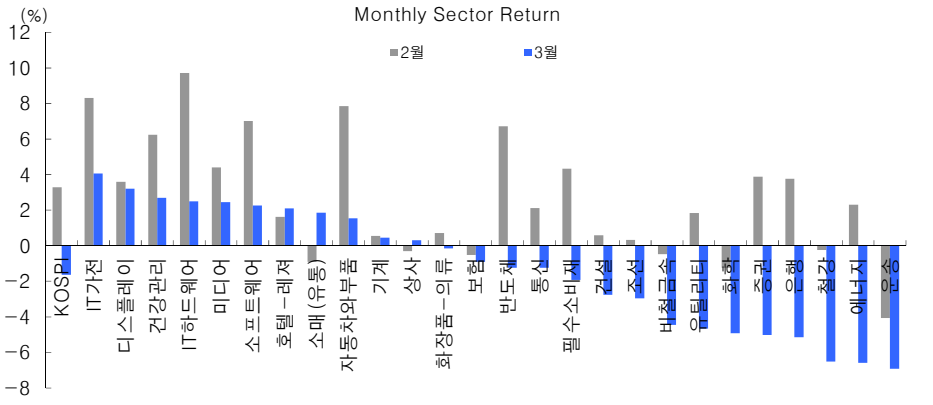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KOPSI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3 월은 매출액 증가율이 높고 이익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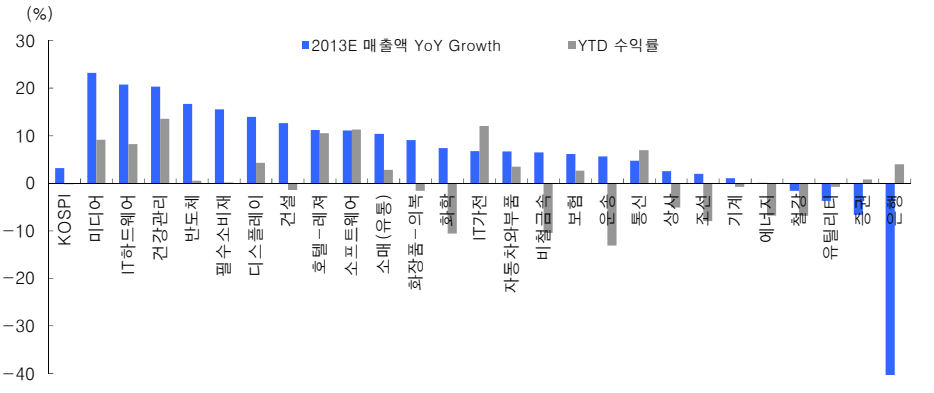
3월의 업종 수익률을 살펴보면 IT가전,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IT하드웨어, 미디어, 소프트웨어 업종의 수익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IT 4개 업종의 성과가 우수했다. 반도체가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이유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삼성전자의 성과가 부진한 영향이 큰데, IT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 미디어, 호텔-레져, 소매(유통) 등 내수 소비재 업종의 수익률도 좋았다. IT섹터와 내수 소비재 업종들은 2013년 매출액 성장성이 가장 좋은 업종이다. 당사 퀀트팀은 매출액 성장성이 현재 업종간 성장성 비교를 할 때 가장 신뢰성 높은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의 이익전망치 중에서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지표가 매출액이기 때문이다. 연초대비 수익률이 좋은 업종으로 건강관리, IT가전, 소프트웨어, 호텔-레져, 미디어, IT하드웨어 등이 있는데 이들 업종이 모두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4월에 2013년 1분기 어닝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이러한 순위는 더 공고해 질 거 같다고 예상한다.

그림 4. **3월에는 반도체 제외 IT, 건강관리, 미디어, 호텔-레져, 소매(유통), 자동차 업종 강세**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I2013년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종의 성과가 좋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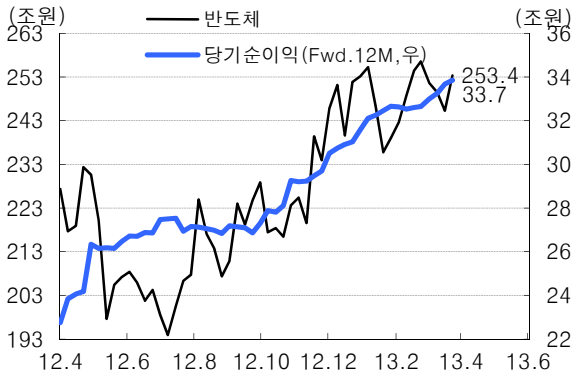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IT 섹터 업종 집중

3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유동성 장세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잠시 쉬어가는 것일지 유동성의 회수가 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는 수급적인 요소보다는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앞서 매출액 증가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익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은 주목해야 한다. 이익 가시성이 낮다는 것은 예상했던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더 낮게 나오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면 개별 종목의 이익이 아닌 종목의 전체 합의 이익인 업종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익 가시성의 낮음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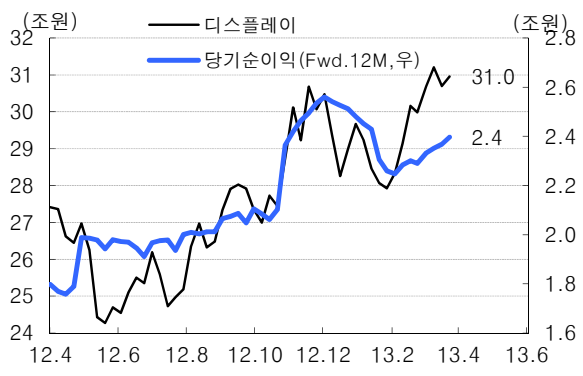
전체 업종 중에서 IT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이익 전망치 상향 정도가 뚜렷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IT하드웨어, IT가전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은 상향 추세에 놓여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커져있는 시점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 전망치 상향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업종은 IT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다.

그림 6.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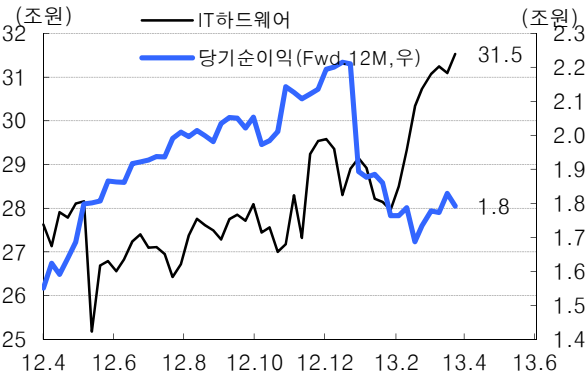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디스플레이도 2월부터 상향 흐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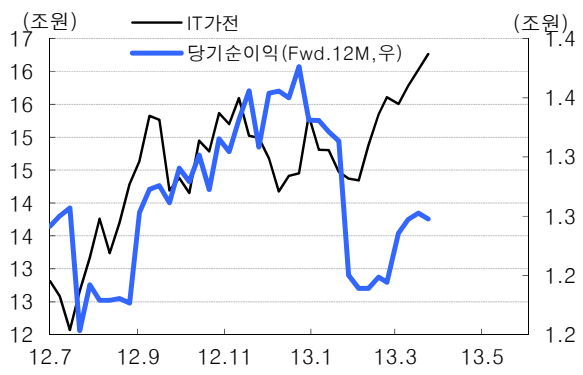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IT하드웨어의 전망치도 상향 트렌드에 놓여 있음**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IT가전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익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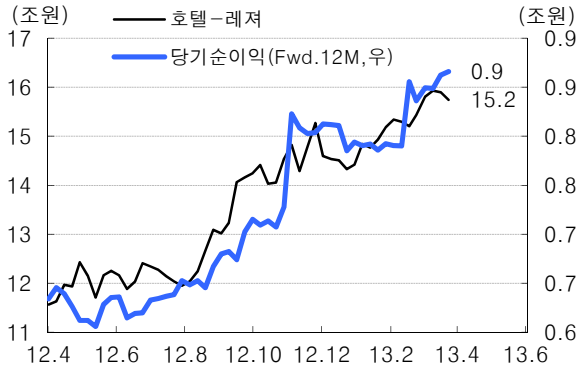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안정적인 이익 전망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내수 소비재 업종

내수 소비재 업종은 2013년 초반 강한 상승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업종이다. 호텔-레져, 미디어, 소매(유통)과 전통적인 방어업종인 필수소비재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호텔-레져, 미디어, 소매(유통)의 꾸주한 주가 상승은 모두 이익 전망치 상향이라는 강력한 안전판을 딛고 이뤄내 결과이다. 이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건강관리 업종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 소비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내수 소비재 상승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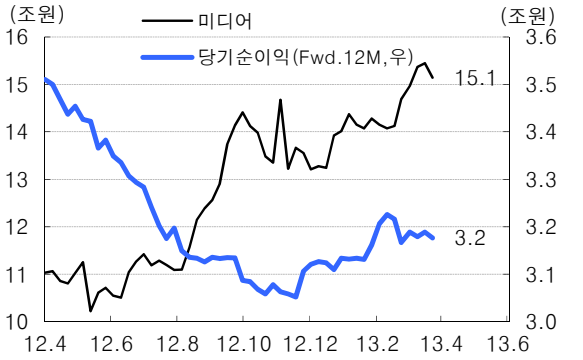
내수 소비재 업종의 강세는 최근의 KOSDAQ 강세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KOSDAQ 종목들의 업종 분류상 IT섹터가 43.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내수 소비재 업종(건강관리+경기소비재+필수소비재)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KOSDAQ 강세는 이익 전망치 상향을 등에 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SDAQ의 고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내수 소비재 업종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0.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호텔-레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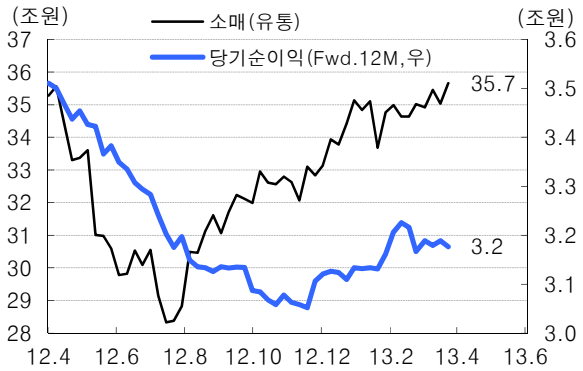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미디어도 12월부터 상향 흐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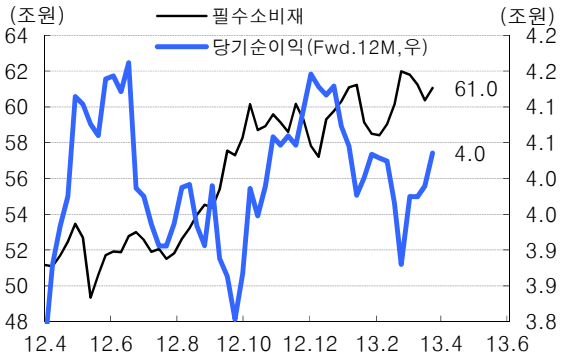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12월부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소매(유통)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필수소비재는 변동성은 크지만 최근 상승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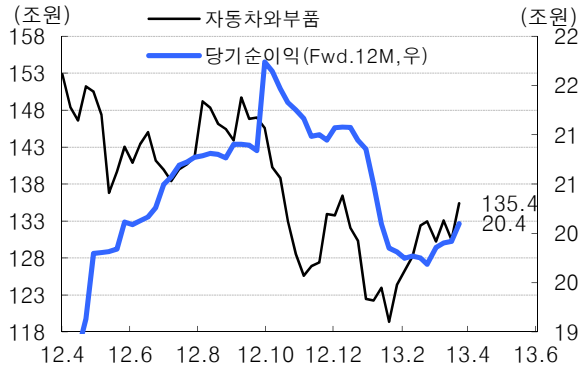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자동차, 비철금속 업종 바닥 찍고 상승. 소재 업종은 아직…

한편 자동차 업종은 6개월여의 이익 하향 조정을 마치고 3월부터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엔의 약세 상황이 3개월 이상 진행되고 더 이상 엔 약세가 지속되지 않으리란 기대감이 자동차 이익 전망치 상향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이다. 시장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과 순이익 비중이 큰 자동차가 상향 조정으로 돌아선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 소재 섹터 중에서는 비철금속 업종이 이익 하향 조정을 끝내고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에너지, 소재 섹터 업종 중에서 비철금속 업종이 선제적으로 이익 전망치 하향을 끝내는 것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전반적인 이익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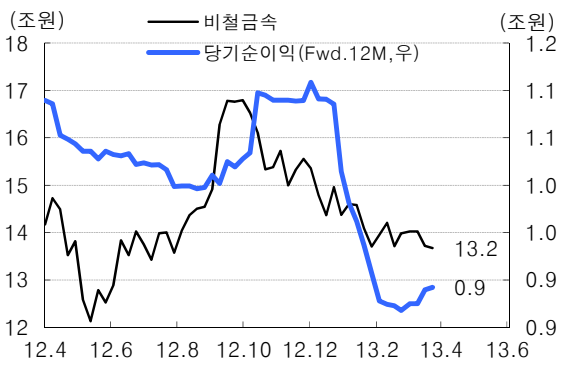
소재, 산업재의 이익 하향 조정이 멈추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있는 투자자 모두의 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추세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동시에 주가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 주식시장은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화학, 철강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 중이다.

그림 14.주가보다 늦기는 했지만 돌아선 자동차의 이익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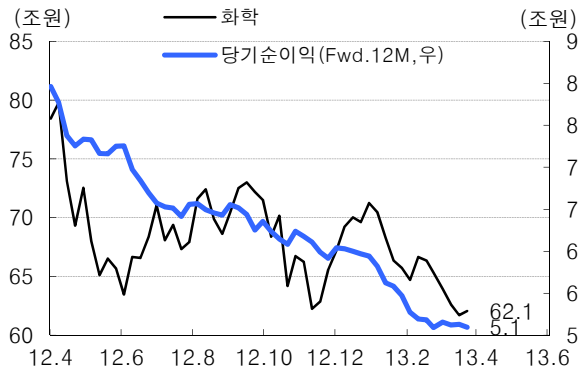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비철금속도 바닥을 찍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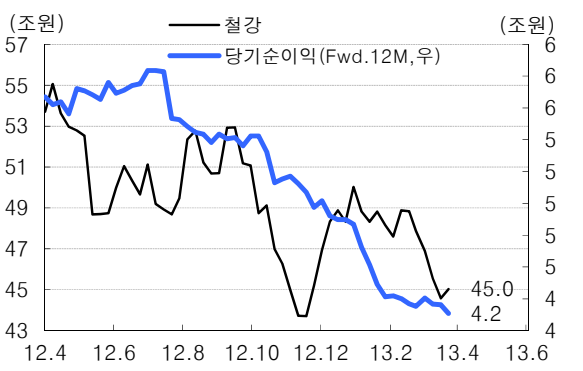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바닥이 요원해 보이는 화학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철강도 바닥이 요원에 보이기는 마찬가지



참고: 검은선은 업종의 시가총액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